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WSJ: 7월 미 고용 크게 둔화...11만4천개 추가
- Bloomberg: 미 실업률 상승, 연준 금리 인하 가능성 높인다
- Reuters: 6월 미 제조 주문 예상보다 하락

[미국 금융]

- WSJ: 투자자들, 실망스런 일자리 발표로 큰 폭 금리 인하에 베팅
- WSJ: 미 국채 금리, 일자리 약세 보고서에 하락
- Bloomberg: 빅테크, 월가에 AI 성과 보여주지 못해

[미 대선]

- Newsweek: 해리스, 전국 여론 조사에서 트럼프 앞서

[오일]

- Bloomberg: OPEC, 석유 생산량 거의 그대로 유지

[물류]

- WSJ: 해운사 머스크, 연간 실적 전망 상향 조정... 홍해 혼란과 컨테이너 수요 증가로

[부동산]

- CNBC: 인플레이션 속 주택 소유, 여전히 좋은 투자인가?

[기후]

- WSJ: 인공지능, 더 빠르고 저비용 기상 예보 시대 연다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CNBC: 엔비디아와 달리 반도체 기업들이 AI 붐 성과 적은 이유는?
- CNN Business: 인텔, 100억불 비용 절감... 직원 15% 감축 예정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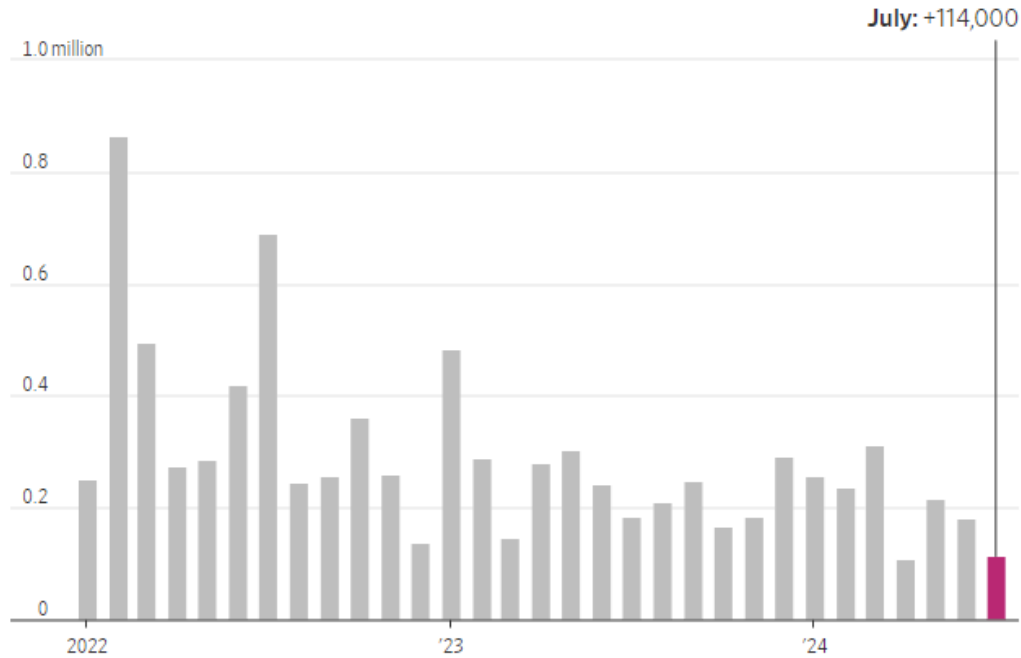
[미국 경제]

WSJ: U.S. Hiring Slows to 114,000 Jobs in July 7월 미 고용 크게 둔화...11만4천개 추가

- 오늘 금요일 연방 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7월 미 일자리가 11만4천개만 추가되어 예상치에 못 미쳤다. 특히 실업률은 4.3%로 크게 올랐다.
- 미국의 일자리는 여전히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노동 시장의 모멘텀은 약화되고 있다. 오늘 발표는 노동 시장이 약세로 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 7월 시간당 평균 임금은 작년 동월에 비해 3.6% 증가해 인플레이 속도보다 높지만 지난 2021년 5월 이래 증가율이 가장 낮았다. 5월과 6월의 합산한 일자리는 총 2만8천개 수정치로 감소했다.

Nonfarm payrolls, change from a month earlier



Note: Seasonally adjusted
Source: Labor Depart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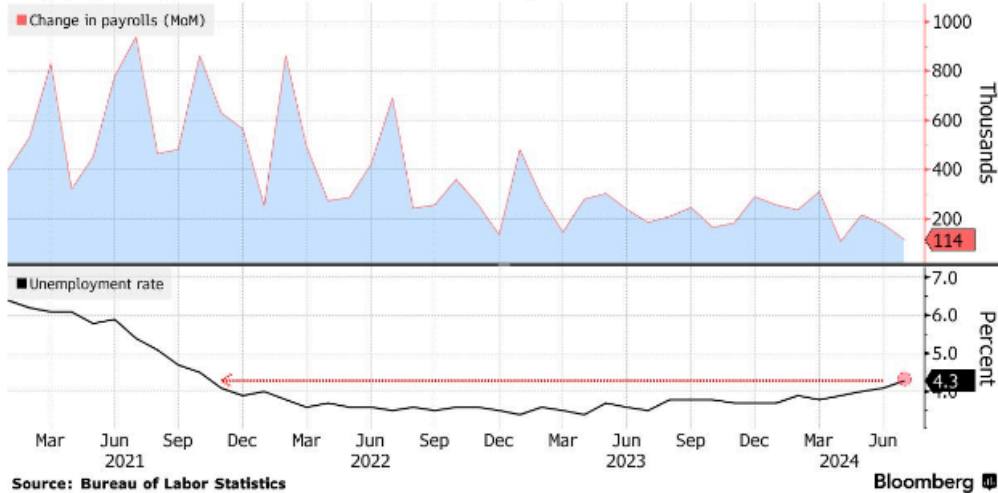
WSJ 기사

Bloomberg: US Unemployment Rate Rises Again, Cementing Path to Fed Rate Cut

미 실업률 상승, 연준 금리 인하 가능성 높인다

- 7월에 고용이 줄었고 특히 실업률이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해 노동 시장이 생각보다 빨리 냉각되고 있다. 이는 연준의 9월 금리 인하 방향을 더욱 강화시켜주는 상황이다.
- 특히 실업률은 연속 4개월간 상승해 4.3%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일자리를 잃거나 떠나는 숫자가, 새로 취업하는 숫자보다 많다는 것이다.
- 이번 일자리 보고서는 미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하락하는 우려를 키우는 실망스런 보고서라는 것이다.

US Job Growth Disappoints, Unemployment Rate Rises Again July payrolls gain was one of weakest since pandemic aftermath in 2020



Bloomberg 기사

Reuters: US factory orders fall more than expected in June 6월 미 제조 주문 예상보다 하락

- 6월 생산 제품에 대한 신규 주문이 예상보다 하락했다. 그러나 제조 장비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는 당초 예측대로 견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오늘 금요일 연방 상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5월에 공장 주문이 0.5% 하락한 후에 6월에는 3.3% 떨어졌다. 당초 공장재 주문 하락 비율은 2.9% 예상했었다.
- 항공기를 제외한 비국방 자본재 주문은 6월에 0.9% 상승했다. 이는 장비에 대한 회사들의 지출 지수를 보여주는 지표다.
- 비국방 자본재 주문은 22.5%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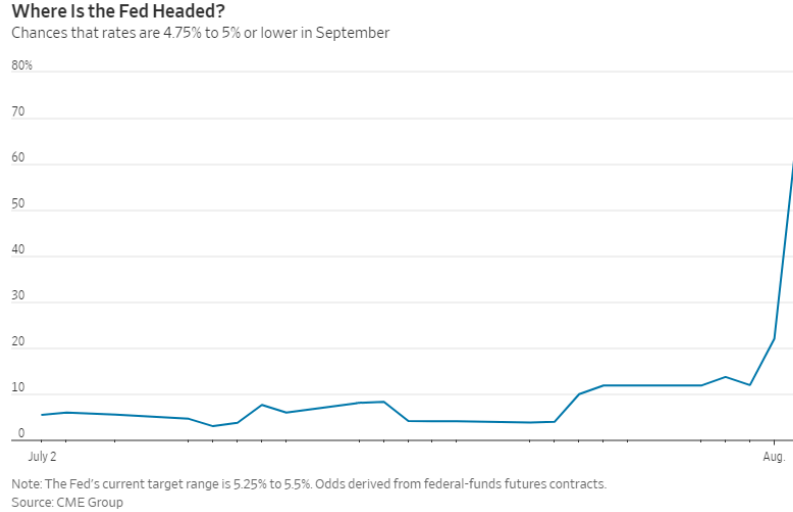
Reuters 기사

[미국 금융]

WSJ: Investors Step Up Bets Fed Will Go Big With First Cut 투자자들, 실망스런 일자리 발표로 큰 폭 금리 인하에 베팅

- 실망스런 오늘 금요일 미 일자리 보고서를 보고 투자자들은 연준이 9월에 공격적인 폭의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베팅하고 있다.
- 선물 가격에 따르면 현재 연준이 9월에 금리 인하 폭이 0.5%가 될 가능성이 70.5%라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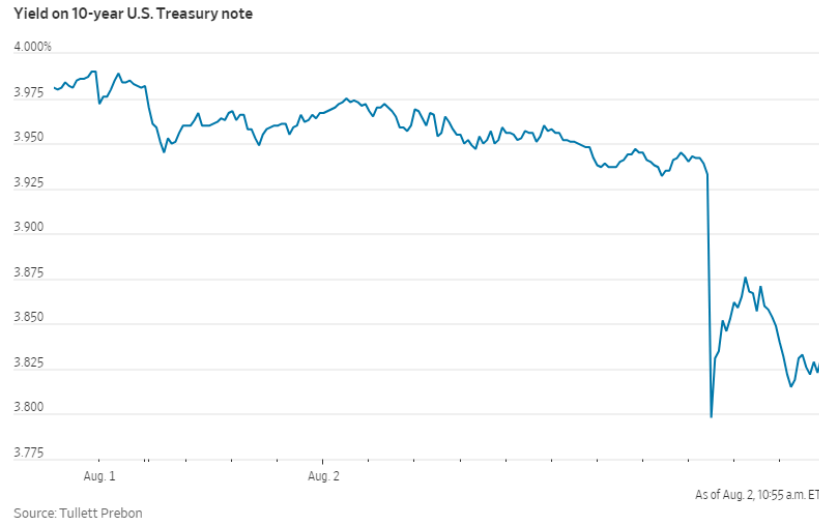
- 이같은 가능성 수치는 일자리 발표전에는 28%에 머물렀었고, 2주 전에는 고작 11.5%였던 것에 비해 크게 증가된 것으로 CME Group 데이터는 밝혔다.
- 연준 펀드 선물 계약은 금리 인하를 현재의 5.25%~5.5%에서 금년말까지 4.25%~4.5% 또는 그 미만으로 감소할 것으로 가격을 반영하고 있다. 이는 어제 목요일 반영된 비율보다 0.25% 더 높은 비율이다.



WSJ 기사

WSJ: Treasury Yields Sink After Weak Jobs Data
미 국채 금리, 일자리 약세 보고서에 하락

- 오늘 발표된 일자리와 실업률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떨어진 발표가 나오자 국채 금리는 크게 하락했다.
- 10년물 국채 금리는 목요일 3.977%에서 3.811%로 떨어진 것으로 Tradeweb 데이터는 밝혔다.
- 투자자들의 미 경제 전망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면서 국채 금리가 하락하고 있다. 오늘 발표 자료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너무 오랫동안 시행하지 않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우려와 논란을 가중 할 것으로 보인다.



WSJ 기사

Bloomberg: Big Tech Fails to Convince Wall Street That AI Is Paying Off 빅테크, 월가에 AI 성과 보여주지 못해

-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은 각각 인공지능에 수십억을 투자하는 상황에서 이를 매출로 연결해 주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 그러나 월가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은 실망스런 실적을 보여주었다.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은 지난주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7.4% 하락했으며 마이크로소프트도 실적 발표 후에 3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아마존 주가는 오늘 금요일에 지난 2022년 10월 이래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 실리콘밸리는 올해를 기업들이 생성형 AI 시행을 시작하는 해로 보고 있으며 이와 관련 구글의 Gemin와 마이크로소프트의 Copilot이 좋은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성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AI의 투자 대비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Bloomberg 기사

[미 대선]

Newsweek: Kamala Harris Now Leads Donald Trump in National Polling Average

해리스, 전국 여론 조사에서 트럼프 앞서

- 부통령 카멀라 해리스가 미 전국 여론조사에서 트럼프를 현재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른바 전국 128개 여론조사들을 집계한 Race to White House에 따르면 해리스가 47% 지지율로 트럼프 46.9%를 앞서고 있다. 트럼프는 7월 30일

까지 앞섰었다.

- 그러나 선거 분석자이며 통계학자 Nate Silver의 예측 모델에 따르면 어제 목요일 현재 해리스는 44.8%, 트럼프는 44.1%로 해리스가 박빙으로 앞서고 있다. 이 모델에 따르면 트럼프는 선거인단에서 54.9% 지지율, 해리스는 44.5% 지지 예측을 보여주고 있다.

Newsweek 기사

[오일]

Bloomberg: OPEC Keeps Oil Output Steady While Cautiously Watching Market

OPEC, 석유 생산량 거의 그대로 유지

- OPEC은 지난달 석유 생산량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며, 최근의 감산이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다.
- 블룸버그 조사에 따르면, 석유수출국기구(OPEC)는 7월에 하루 평균 약 2,699만 배럴을 생산했으며, 이는 6월보다 약 6만 배럴 감소한 수치이다. 주요 고객인 중국의 수요가 둔화되면서 베네수엘라와 이란이 생산량 감소를 주도했다.
- OPEC과 동맹국들은 이번 주에 모니터링 회의를 열어 2022년부터 중단되었던 생산량을 4분기부터 점진적으로 재개할 준비를 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주도하는 이 위원회는 계획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예정된 공급 증가를 일시 중지하거나 되돌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원유 선물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국제 벤치마크인 브렌트유는 배럴당 80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Bloomberg 기사

[물류]

WSJ: Maersk Lifts Guidance as Red Sea Disruption and Strong Demand Continue

해운사 머스크, 연간 실적 전망 상향 조정... 홍해 혼란과 컨테이너 수요 증가로

- A.P. Moeller-Maersk는 홍해 혼란과 컨테이너 수요 증가로 인해 3개월 만에 세 번째로 연간 실적 전망을 상향 조정했다.
- 컨테이너 선사들은 지난해 말 후티 반군의 상업용 선박 공격으로 인해 홍해를 우회하는 긴 항로를 이용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선박 부족과 항만 병목 현상이 발생하며 운임료가 폭등했다.

- 머스크의 CEO 빈센트 클레르크는 가능한 모든 선박과 유류 선박을 재배치하여 네트워크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노력하고 있지만, 앞으로 몇 달간 수요를 충족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 머스크는 홍해 상황으로 인한 공급망 차질이 적어도 2024년 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또한, 컨테이너 시장 수요는 여전히 견조하며 올해 전 세계 시장이 기존 2.5%~4.5% 성장에서 4%~6%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4분기 공급과 수요 전망은 불확실하며 홍해 상황도 예측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WSJ 기사

[부동산]

CNBC: Home valuations are rising faster than incomes. Here's why that could hurt homeowners' wallets

인플레이션 속 주택 소유, 여전히 좋은 투자인가?

-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주택 소유가 여전히 좋은 투자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주택 가격이 소득보다 빠르게 상승하면서 주택 가치와 함께 유지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
- 미국 상공회의소의 2023년 분석에 따르면, 모기지 대출을 받은 주택 소유자 중 약 25%가 소득의 30% 이상을 주택 비용으로 지출하는 '비용 부담형' 주택 소유자로 간주된다. 전미부동산협회의 Devon Viehman은 많은 사람들이 주택 구매 시 월 상환금이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 전미부동산협회의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단독 주택 소유자는 10년간 주택을 통해 평균 22만5천 달러의 자산을 축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주로 서류상의 자산에 불과하며, 실제 현금화는 주택을 매도할 때 이루어진다.
- 주택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재산세도 증가할 수 있다. 코어로직의 2024년 연구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사이에 부동산 가치 재평가를 받은 주택 소유자의 재산세는 평균 25% 증가했다. 이는 미국 내 주택의 연간 재산세 중간값이 600달러 이상 증가한 것을 의미한다.
- 주택 보험료도 변동될 수 있는 비용 중 하나이다. 보험 비교업체 Insurify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평균 주택 보험료가 20% 상승했으며, 2024년 말까지 추가로 6%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CNBC 기사

[기후]

WSJ: AI Is Learning to Predict the Weather 인공지능, 더 빠르고 저비용 기상 예보 시대 연다

- 인공지능이 날씨를 예측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AI 기반 프로그램이 기존 방식보다 더 빠르고 적은 비용으로 기상 예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지난 5년간 AI를 활용한 기상 예측은 미국과 유럽의 기상청, 기업 등에서 연구 단계에서 실제 테스트 단계로 발전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5월에 기존 모델보다 5천배 더 빠르게 5일간의 전 세계 대기 오염 예측과 기상 예보를 제공하는 '오로라(Aurora)'를 출시했다. 미국 내 다양한 대학과 기업들도 새로운 AI 기반 기상 예측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 지구 온난화로 극단적인 날씨가 일상화되고, 이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어 빠르고 정확한 예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11월에는 구글 딥마인드가 AI 기반 날씨 모델인 GraphCast를 도입했으며, 연구 과학자 레미 램도 기상 예보의 정확성을 강조했다.

WSJ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CNBC: Why all semiconductor firms are not benefiting from the AI boom like Nvidia has 엔비디아와 달리 반도체 기업들이 AI 붐 성과 적은 이유는?

- 일부 반도체 기업은 AI 붐으로 이익을 얻고 있지만, 모든 기업이 그런 것은 아니다. 이는 반도체 산업의 복잡한 공급망과 특정 분야에서의 기업 간 우위를 보여준다.
- 현재 AI에 대한 관심은 대규모 언어 모델(LLM)과 생성형 AI를 중심으로 모아지고 있다. LLM은 훈련을 위해 막대한 양의 컴퓨팅 자원과 데이터가 필요하며, 구글과 오픈 AI의 챗봇과 같은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에 사용된다.
- LLM을 훈련하는 기술 대기업들은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메타는 수요 일예 “2025년까지 AI 연구와 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자본 지출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기술 대기업들의 지출은 엔비디아에 큰 혜택을 주었는데, 이는 이 회사의 그래픽 처리 장치(GPU)가 이러한 LLM을 훈련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이다.
- 그러나 모든 반도체 기업이 AI 투자 증가로 인해 직접적인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기술 발전 단계에서는, 해당 AI 기술에 대한 기업들의 실질적인 노출은 아직 그리 크지 않기 때문이다. 퀄컴과 ARM은 이번 분기에 대한 보수적인 전망을 발표한 후 주가가 하락했는데, 이는 AI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두 기업의 주장과는 대조되는 현실을 반영한다.

CNBC 기사

CNN Business: Intel lays off 15% of its staff and its stock tumbles as it struggles to turn around its ailing business**인텔, 100억불 비용 절감 ... 직원 15% 감축 예정**

- 인텔이 목요일 2분기 실적 발표에서 100억 달러 규모의 비용 절감 계획의 일환으로 직원의 15%를 감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 팻 겔싱어 CEO는 매출이 예상만큼 성장하지 못했고 AI 트렌드에서 충분한 혜택을 보지 못했다고 언급하며, 새로운 운영 모델에 맞게 비용 구조를 조정하고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경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 인텔은 2분기에 128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 감소한 수치이다. 또한 16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다.
- 한때 PC와 맥 컴퓨터용 칩 시장을 지배하던 인텔은 모바일 컴퓨팅의 급격한 성장에 미처 대비하지 못해 모바일 칩 시장의 선두 주자인 퀄컴과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 시가총액을 추월당했다. AI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크게 상실해 엔비디아에 크게 뒤처지고 있다.

CNN Business 기사

美日 정책전환기 증시 '널뛰기'...美공포지수 3개월만에 최고**美나스닥, FOMC 당일 2.64% 상승 후 이날 2.30% 떨어져
日닛케이, BOJ 회의 당일 1.49% 올랐지만 이후 급락세**

이번 주 미국과 일본이 금리 결정 회의를 통해 시장에 중요한 신호를 보낸 가운데 미국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치면서, 증시가 '널뛰기 장세'를 보이고 있다.

하루 사이에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주가 변동성에 투자자들의 혼란이 가중되는 양상이다.

미 증시는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지난달 31일(이하 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5.25~5.50%로 동결하면서도 9월에 금리 인하를 시사하자 당일 강세를 보인 바 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